

자연·인간·예술이 하나된 공간 '예술인 마을'

갤러리·사진방·카페...자연속 예술향기 발산 '문화명소'

나주 남천예술인마을

초겨울, 눈은 내리지 않았지만 굴뚝 위로 하늘하늘 피어오르는 연기가 한 폭의 그림처럼 아름답다. 싸목싸목 산책하듯 숲속 정원을 오르다보니 나무 기둥이 짙게 박혀있는 흙집이 하나 둘 보이기 시작한다. 잠시 걷는 것만으로도 힐링이 되는 이곳은 나주시 노안면의 남천예술인마을이다.

"남들은 이곳을 예술인마을이라고 부르지만, 그보다 강조하고 싶은 건 우리 마을은 자연 친화적인 마을이라는 거예요. 나무와 꽃, 사계절 새들이 찾아와 지저귀는 곳이지요. 봄에 오셨으면 기막힌 풍경을 보실 수 있었을 텐데 아쉽네요. 봄이 되면 또 한 번 놀러오세요."

"꽃피는 봄도 좋지만 봄 못지않은 게 우리마을 겨울 풍경이지요. 눈 내리는 날 찾아오셔도 좋아요. 이곳은 유독 눈도 많이 내립니다. 온통 새하얗게 덮인 모습은 환상적이예요."

남천예술인마을을 찾은 날은 겨울이 막 시작된 12월초였다. 며칠 전 새로 입주한 신인(?) 양인목 씨 집에 모여 앉은 예술인들은 차분한 목소리로 마을 자랑하기에 바빴다. 각기 다른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예술가들이라지만 그들의 대화에서 이질감은 찾아볼 수 없었고 오히려 그런 점이 서로에 대한 호기심을 자극하고 있는 듯 했으며 '이웃사촌' 담겨 화기에애한 모습이였다. 집주인 양씨는 반가운 이웃들을 위해 따뜻한 국화차와 과일, 꽃감, 군고구마 등 테이블 가득 대접하느라 분주했다.

"이곳은 자연을 품고 있는 마을입니다. 자연속에서 더불어 살며 자유롭게 문화예술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설립했지요. 예술인들이 모여 발생하는 에너지로 마을이 보다 건강하고 아름답게 발전하기를 바랍니다."

남천예술인마을을 설립한 이는 남재천(61) 이사장이다. 예술인이 아닌 사업가라며 자신을 소개한 남 이사장은 궁극적으로 '문화예술이 살아있는' 나주를 만들고 외국인들이 우리 고유 문화를 찾아 한국을 찾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예술인마을을 시작하게 됐다고 말을 열었다.

'남천예술인마을'의 탄생은 9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처음 90평으로 시작했던 공간은 하나 둘 흙집을 지어가면서 부지를 넓혀갔고 현재 1만5000평에 18명의 예술인이 살고 있는 마을의 모습을 갖추게 됐다. 흙과 나무만을 이용한 친환경주택을 고집했으며, 주변 경관을 그대로 살려 인간과 자연이 서로 공존할 수 있는 공간이 되도록 연출했다.

입주가 확정된 예술인들에게는 마을내 흙집을 무상으로 제공했다. 주민등록을 나주시로 옮기고, 수도세와 전기세는 본인이 부담할 것, 두 가지만 지켜주면 되는 조건이었다. 다만 이웃에게 피해를 주는 행동을 보일 경우 퇴촌 결정이 내려진다.

"예술인들이 모여 공동체 생활을 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마을을 만들면서 많이 고민했던 부분이기도 해요. 하지만 각자의 개성이 있기 때문에 예술 활동을 하는 것이라 생각해요. 마을을 꾸리면서 제 스스로 정한 방침이 있다면 '간섭하지 않겠습니다'."



흙과 나무만을 이용해 만든 남천예술인마을 흙집.



남재천 이사장(오른쪽)이 사비를 털어 조성한 마을에는 현재 18명의 예술인들이 모여살고 있다.



구례예술인마을의 한 갤러리에서 인테리어 소품만들기 체험을 한 구례 산동중 학생들.

● 나주 남천예술인마을

9년전 남재천 이사장이 사비 털어 조성
흙과 나무만 이용 친환경주택 고집
현재 15000여평에 서양화가·도예가 등 18명 거주

마을에는 현재 18명의 예술인이 입주해 있다. 각자의 보급자리 공개에 흔쾌히 응해준 예술인들을 따라 마을을 둘러보는 시간을 가졌다. 양인목씨의 집과 이웃해 있는 곳은 사진작가 최옥수씨의 공간이다. 흙벽에 걸려있는 '최옥수 사진방' 팻말이 눈에 띈다. "저는 이 집이 숨쉬는 집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곳에 머무르다 보면 세월이 거꾸로 가는 느낌을 받기도 해요. 원주민이 된 기분일까요."

● 구례예술인마을

5개 공방 협동조합 만들어 체험프로그램 운영
한국화·판화·웃칠공예 등 다양한 장르 예술 감상·체험
'롱 스테이' 통해 그림·도예 레슨 방문자 늘어

말끔했다. 작은 공간이지만 가까운 이웃들이 모여 티타임을 갖기에 최적의 장소인 듯 했다. 서양화가 최병구 작가의 공간에는 대작(大作) 수십개와 각종 미술 도구들이 많았지만 잘 정리되어 있었다. 도예가 유영대 작가의 공방 이름은 '남천요'다. 유 작가가 직접 만든 찻잔과 중국을 오가며 가져온 다양한 차(茶)가 많은 탓에 이곳은 종종 예술인들의 사랑방 겸 카페가 되기도 한다. 마지막으로 찾아

간 곳은 공연기획자인 이용화씨가 아내와 함께 지내고 있는 공간이다. 사방에 나 있는 창밖으로 예술인마을의 자연이 한 눈에 들어오는 곳이다.

남 이사장은 "좋은 사람들이 어울려 사는 곳이 진정한 '명당'이라고 생각한다"며 "사비를 들여 예술인들에게 무료로 공간을 제공하고 있지만, 좋은 사람들을 만났고 소통하는 것이 생겼다는 점에서 그 이상의 값어치를 선물받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전했다.

구례예술인마을

머리에 분홍 꽃잎을 장식한 강아지 '방울', EDM(일렉트로닉 댄스음악) 아티스트 마시멜로와 노르웨이 뮤지션 알렌 위커 영문 이니셜, 커다란 벨과 눈썹인 크리스마스 트리...

구례 산동중학교 1학년생 12명은 나무판자와 에코백, 탁상시계에 아크릴 볼감으로 저마다 다른 그림들을 그려 넣었다. 구례예술인마을 '오픈스튜디오' 체험프로그램 중 하나인 한 갤러리 '인테리어 소품 만들기'를 통해서다. 자유학기제 수업을 위해 구례예술인마을을 찾은 학생들은 1시간30분 동안 진지하게 자신만의 '장작' 활동에 몰입했다.

현재 구례예술인마을내 5개 공방이 영리법인인 '구례예술인마을 오픈스튜디오협동조합'을 만들어 다채로운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아크릴화 체험과 인테리어 소품 만들기' (한 갤러리)를 비롯해 나뭇잎과 스텝을 이용한 판화체험을 할 수 있는 '편편한 판 아트' (판공방·김경희 작가), 도예 체험을 할 수 있는 '자신만의 도자기로 만들기' (화수분·최범창 작가) 등이다.

'구례예술인마을'이 구례군 광의면 온당리 당동마을 인근에 개촌한 때는 지난 2012년 4월. 서울 등 외지에서 온 30여명의 예술인들이 자발적으로 부지를 매입해 거주와 창작을 할 수 있는 작업실을 갖춘 주택을 지었다. 자신들의 개성이 드러나도록 집을 직접 설계했다. 이에 맞춰 구례군은 진입도로와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을 지원했다.

마을은 지리산 자락인 간미봉을 병풍으로 두르고 남향으로 자리 잡고 있다. 마을입구 난동제 저수지에서 바라보는 마을 풍경은 한폭의 그림 같다. 자연과 예술이 하나가 된 공간이다. 입주한 예술인들은 서양화와 한국화, 조각, 판화, 도예, 천연염색, 옷칠공예, 사진, 음악 등 다양하다. 여러 예술인들이 작품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장르의 예술을 감상하고 체험할 수 있다. 짧게는 2-3일, 길게는 한 달 이상 마을에 장기 체류하는 '롱 스테이'(Long Stay)를 통해 그림이나 도예 레슨을 받으면서 자신의 작품을 창작하는 방문자도 늘고 있다.

새해에는 구례예술인마을의 숙원 사업인 미술관 건립 작업이 본격화된다. 2020년 설계에 들어가 이듬해에 착공할 것으로 예상된다. '자연 속에 살아있는 미술관'을 슬로건으로 내건 구례예술인마을은 지역 내 문화활동을 북돋우고, 예술향기를 발산하는 따뜻한 공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보람 기자 boram@kwangju.co.kr
/사진=나명주 기자 mjna@kwangju.co.kr

작은만남 큰 기쁨! 친절과 정성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개업·성업 안내

광주일보 구독신청 및 배달사고 문의 업무국 062.220-0551

다뜻한내과·건강검진센터 북구 운암동 남양휴튼2차상가 2층 소화기 내시경 전문의 2인 진료시간 : 평 일 오전 8:30~오후 6시 토요일 오전 8:30~오후 1시 원장 이상선·박민규 ☎062)511-3388	三代(삼대)원조 나주공방 무안군 삼향읍 오동2길 14 (전남도청 옆) 태양집 60년 전통 수육, 수육무침, 육회 포장가능 단체환영 ☎061)287-3229, 010-3602-0297	국제행복찾기 결혼정보 나주시 동점문길 8(중앙동98-6) 베트남, 캄보디아, 필리핀, 중국 최고의 만남을 주선합니다. ☎061)337-7712, 010-5288-3257	향촌 서구 상무화원로 32번길 29-3(차평동) 한우, 생삼겹살, 돼지양념갈비, 대패삼겹살 육회비빔밥, 제육볶음, 김치찌개, 냉면 시골떡국 단체손님환영 ☎062)371-0583, 010-3947-0005	우영생기원 동구 독립로 282-10 (대인동) 2층 척추교정, 기저보, 유전질환치료, 건강상담 수액, 명당, 철학, 작명, 공학, 태일, 도인양성 각 분야 개인지도 ☎062)236-2655, 010-3646-2977	동양철학원 동구 불로동 11-2 (평화시장 옆길) 사주, 작명, 개명, 신수, 공학 택일, 개인지도 함. ☎062)224-7687, 010-2611-7687
OK 당구장 동구 대인동 220 대인농협옆 (가오무대 지하) 포켓대 당구대설치, 최신시설완비 냉,난방 완비 친절, 신용 본위 ☎ 010-8005-0188	완도전북 나주시 나주로 131 (나주신협옆) 산지 직송 도소매 전국택배가능 ☎010-2831-9257	나주산약초 나주시 동점문길8 (나주티미널빌) 미세먼지 걱정없음!! ☎061)333-4514, 010-3620-7268	함께와들개 나주시 나주로15 (나주신협앞 다리 건너 위) 김밥·멸치국수전문점 김밥8멸치육전국수 ☎061)332-9992, 010-7103-2556	박당화랑 동구 공동 51-18번지(예술의 거리) 한국화, 서양화 매매 및 감정 대표 박환승 ☎062)222-6866	석당화랑 동구 공동 예술의 거리 병풍, 액자, 족자, 표구일체 고서화 위탁판매 대표 이석재 ☎062)222-3118
(주)로만손시계 (주)오리엔트시계 동구 호남동 13-3 금, 은, 고급시계 상담대환영!! 광주, 전남 대리점 A/S센터 ☎062)232-0038, 010-2290-0038	진주공방 동구 지산동 동구국민체육센터앞 가족공예 수업 및 주문제작 원데이클래스 학교수업 단체수업 가족소품만들기 ☎ 010-3906-1718	황금세차장(주) 남구 송암로 27번길 23 (송암공원에서 효천지구방향 진입로옆) 초대형셀프세차, 손세차, 광택, 유리막코팅 대표이사 김용연 ☎062)652-4564	양지공인중개사 북구 두암동 부영아파트 정문앞 아파트, 빌딩, 원룸, 투룸, 상가 임야, 토지 경매·권리분석 대표 정민각 ☎ 062)263-2223	해동공인중개사부동산컨설팅 나주시 산포면 468-4(산포면사무소 입구) 토지·임야·주택·아파트·땅 각종부동산 매매 상담 ☎ 061-337-8244, 010-3626-9040	초대화랑 동구 공동54-2번지(예술의 거리) 동양화, 서양화 전문판매점 대표 임해택 ☎062)222-2516
골프가방수선전문점 서구 치평동 세정아울렛점동 동양빌딩앞 명품가방수선, 골프가방수선, 등산화수선 전문점 ☎ 010-2087-3592	고전방 동구 공동 34-4 (중앙초등학교 후문) 도자기, 서양화, 고서화 전문판매점 대표 김화중 ☎062)224-4869	광주갤러리경매장 동구 대인동 동부소방서후문앞 침종은빌 1층 수석, 동양화, 서양화, 민속품 매주 토요일, 일요일 오후2시부터 ☎ 010-6778-9330	신신예술의집 동구 공동 예술의 거리 기념품 전문 판매점 대표 서태석 ☎062)222-1936		